

기업 74% “새 정부, 산업기술혁신 정책 잘할 것” 기대

산기협 ‘새 대통령에 산업기술인이 바란다’ 설문 결과

기업 규제 문제 해소,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 기대

기업 10곳 중 7곳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업 규제 해소와 R&D(연구 개발) 지원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결정된 이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기술혁신기업 1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대통령에게 산업기술인이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0%가 ‘아주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3.7%는 ‘잘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응답이 73.7%에 이르렀다. 부정적인 평가는 22.9%였다.

새 정부가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은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가 31.2%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과감한 R&D 조세·금융 지원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제 문제 해소’는 25.2%로 나타났다.

또한 ‘R&D 인력 문제 해소’ 16.9%, ‘탄소중립·디지털 혁신 대응 R&D 투자 집중’ 12.6%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정부 지원의 확대에 기업의 관심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는 민·관 R&D 협력과 기업 기술인 예우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졌다.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41.8%의 기업이 ‘다소 좋아질 것’, 30.0%의 기업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당선인의 ‘민간 주도의 R&D 환경 체질개선’ 공약 등 친기업적 행보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기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운영하는 ‘민간R&D협의체’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간R&D협의체’는 민·관 R&D 협력을 위한 대표 기구로, 정부 R&D 투자 방향 설정 과정에 110개 선도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41.4%의 기업이

현 정부에 비해 ‘다소 좋아질 것’, 31.0%의 기업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인력 격차 해소 등을 주문했다.

마장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가기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 13주년 ‘부산~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

제주항공은 2009년 3월20일 인천~오사카 노선에 주 7회 운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시대를 연 이후 국제선 취항 13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국제선 취항 첫해인 2009년 15만명 수송을 시작으로 2012년 119만명을 수송해 연간 100만명 시대를 열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인 836만명을 수송하며 2009년에 비해 55배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국제선 수송객은 2019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방역 당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표에 맞춰 국제선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3월30일부터 주 2회(수·일요일) 일정으로 부산~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의 증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사이판/하얼빈/웨

이하이/엔타이(화물노선) ▲인천~오사카 ▲인천~마닐라/클락/세부 등 총 8개 노선을 운항하면서 국적 LCC중 가장 많은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운항을 중단한 ▲인천~도쿄/팜 노선과 3월30일부터 운항 예정인 ▲부산~사이판 노선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총 11개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했다.

인천~사이판 노선의 경우 지난 1월29일부터 4박5일 패턴의 운항스케줄로 변경해 운항하면서 90% 중반대의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인천~오사카 노선과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교민 수송 등을 위해 지난 2월까지 2년간 꾸준히 주 1회씩 운항하며 1만3900여명과 2만5300여명을 각각 수송했다.

오유나기자



티몬, 여행상품 매출 449% 급증

오늘부터 5일간 봄 여행 특집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가 시행되며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티몬에 따르면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발표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제주여행 상품 증가폭보다 10배나 높은 수치다. 티몬은 치솟는 여행 수요에 맞춰 21일부터 5일간 봄 여행 특집 ‘오늘의여행’은 여가인기 봄을 시작한다. 매일 오전 10시 고정 프로그램인 ‘오늘의여행’을 특별 편성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티몬은 22일 무격리 사이판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에어서플을 출발로 사이판 월드리조트 3박4일 자유여행이 58만9000원이다. 방송 당일 구매자 전원에게 렌터카 24시간 이용권 및 디럭스 룸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여행 상품도 꾸준히 늘린다.

21일에는 제주신화월드 4개 전 지점 상품을 단독 특가에 만날 수 있다. 슈퍼리어 킹 객실 주중가 기준 11만5000원으로 크게 저렴하다.

23일에는 톨립 축제가 열리는 에버랜드의 종일이용권을 추러스 포함 2만9900원 특가로 마련한다.

이슬비기자

제네시스, 아티스트 그룹과 GV70 전동화모델 특별전시회 개최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스 그룹 ‘IVAAIU CITY’ 설치 미술 접목



제네시스가 ‘GV70 전동화 모델’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럭셔리 전동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제네시스는 다음달 17일까지 뉴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아이브이아이에이아이유 시티(IVAAIU CITY)’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GV70 전동화 모델을 ▲제네시스 수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안성 등 주요 거점에 특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과 도요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IVAAIU

CITY는 도시계획, 건축, 화학, 시각예술, 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설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GV70 전동화 모델이 가진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와 제네시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감각적인 뉴미디어 아트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IVAAIU CITY의 대표적인 작품인 ‘로드스케이프 MMXXX(Roadscape MMXXX)’를 차량 전시에 접목해 미래의 도로

경관에 대한 상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채로운 빛과 설치 조형물로 표현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GV70 전동화 모델의 젊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예술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며 “제네시스는 정형화된 자동차 쇼룸에서 탈피, 독창적인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럭셔리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각인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판매를 개시한 GV7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의 중형 럭셔리 전동화 SUV다. 배터리의 이상적인 배치와 서스펜션 튜닝 등으로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고급스러운 주행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스트모드, e-터레인 모드 등의 탑재로 전가차 고유의 특성을 최적화했다.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이어 GV70 전동화 모델까지 총 3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된 제네시스는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네시스의 전동화 비전의 구체화 및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순천상의, 지역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청년취업 촉진사업 확대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9개 사업 선정

순천상공회의소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남도와 순천시비등 28억여원을 확보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순천상의가 수행할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울촌·해룡산단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울촌·해룡산단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순천형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울촌·해룡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 4대를 평일 출근 2회와 퇴근

2회 운행할 계획이며, 울촌·해룡산단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을 1인당 최대 월3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천형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부족한 시내버스 운전원을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공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회사로 프로젝트사업 ▲취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 ▲순천형 신성장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올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일·생활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사업,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순천형 신성장산업 ICT/SW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한다.

이후 순천상의 회장은 순천지역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직원예산을 확대 반영해 준 전남도와 순천시에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 확산과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청년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백화점 큰 손은 MZ 남성’...롯데백 ‘남성 영 브랜드’ 확대

‘플렉스’ 현상 확산

롯데백화점이 ‘남성 영 디자이너’ 상품군을 새롭게 선보이며 브랜드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젊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플렉스’ 현상이 확산되며 백화점에도 이 수요를 잡기 위한 신규 카테고리라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3년간 롯데백화점의 남성 고객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20~30대 남성 고객의 1인당 매출 성장세는 남성 전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합리적 구매를 추구하는 MZ 세대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과 퀄리티, 가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적극 키워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 잡실점 5층에 데일리 워크웨어 브랜드 ‘노이스(VOICE)’를 입점하며

첫 포문을 열었다. 노이스는 브랜드 론칭 1년이 채 되지 않아 상품력을 입증 받고 있다. 잡실 1호점은 20평 규모로 아우터, 티셔츠, 바지, 액세서리 등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은 아노락 점퍼와 맨투맨으로 각각 31만 9000원, 17만9000원에 판매한다.

노원점 5층에는 가죽 전문 편집 스토어 ‘레더 크래프트’도 개장했다.

노이스가 의류가 중심인 브랜드라면 레더 크래프트는 액세서리가 강한 브랜드다. 가죽을 전문으로 팔찌, 안경집 등 액세서리 뿐 아니라 가죽 점퍼 의류까지 취급하는 20평 규모의 남성 편집 매장이자. 대표 브랜드로는 오로비안코와 베레스토, 바코드, 조셀 등이 있다. 가격대는 가방이 26만8000원부터, 기타 액세서리는 3만9000원부터다.

최이슬기자

